류현진 첫승, 6이닝 1피안타 8K 무실점…투타 만점 활약

삼진 퍼레이드 오클랜드 타선 '꽁꽁'

'볼넷+안타' 멀티출루도…부진 탈출

류현진(31·LA 다저스)이 탈삼진 퍼레이드를 펼치며 지난 경기의 부진을 날려버렸다. 시즌 첫 승이다.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8탈삼진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팀이 4-0으로 승리하며 류현진은 올 시즌 첫 승리투수가 됐다. 평균자책점은 7.36에서 2.79로 크게 낮췄다. 총 투구수 90개 중 스트라이크는 60개다.

류현진이 6이닝 이상 무실점과 함께 8개 이상 탈삼진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7일 뉴욕 메츠전(7이닝 무실점 8탈삼진) 이후 10경기 만이다.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시즌 첫 정규시즌 등판에서 3⅔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부진했던 류현진은 등판 일정이 한 차례 취소되면서 8일 만에 두 번째 마운드에 섰다.

다저스도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가운데 류현진의 어깨가 무거웠지만 팀이 꼭 필요한 때 제몫을 하며 믿음에 보답했다.

1회 초 첫 타자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한 류현진은 맷 챔프먼과 풀 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허용했다.

그러나 제드 로우리를 3구 삼진으로 돌려 세운 뒤 크리스 데이비스마저 공 4개로 삼진 처리하며 이닝을 마쳤다.

시즌 초반 타격 침체에 빠진 다저스 타선이 1회 말 첫 공격부터 점수를 뽑았다. 다저스의 테이블 세터 크리스 테일러와 코리 시거가 백투백 솔로포로 2-0으로 앞섰다.

류현진은 정확한 제구와 다양한 구종으로 오클랜드 타선을 꽁꽁 틀어막았다. 2회 선두타자 맷 올슨을 상대로 세 타자 연속 삼진을 기록하는 등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3회에도 제이크 스몰린스키와 마커스 세미엔을 삼진 처리하며 가볍게 이닝을 마쳤다. 4회 역시 세 타자 만을 상대하며 노히트 노런 행진을 이어갔다.

5회 류현진은 스티븐 피스코티에게 첫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뜬공으로 잡고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다.

6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트레이시 탐슨과 마커스 시미언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 세운 뒤 챔프먼을 포수 파울플라이로 잡아내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마운드에서뿐 아니라 타석에서도 춤을 췄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했고, 4회말 2사 1루에서는 마네아의 초구를 좌전 안타로 연결하며 멀티 출루에 성공했다.

시즌 첫 볼넷과 첫 안타를 한 경기에서 기록했다.

다저스 타선은 6회 맷 캠프의 솔로포로 1점을 추가한 뒤 로간 포사이드의 적시타로 4-0으로 달아났다.

류현진은 6회말 자신의 타석 때 작 피더슨과 교체되며 이날 경기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이후 다저스 불펜 토니 싱그라니(1이닝)와 로스 스트링플링(1⅓이닝)이 9회 1사까지 4-0의 리드를 유지했다.마무리 켄리 잰슨이 1사 1, 2루 위기에서 마운드를 이어 받아 뒷문을 확실히 걸어 잠그고 류현진의 승리를 지켰다.

앞선 9경기에서 홈런 4개에 그쳤던 다저스 타선은 이날 경기 홈런 3개를 터뜨리며 류현진의 승리를 도왔다.

류현진의 호투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긴 다저스는 4승 6패가 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라남도협회장기에 우승을 차지한 고흥군선수들이 시상을 마치고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협회장기 및 여성게이트볼대회 '성료'

제28회 전라남도협회장기 및 제4회 전라남도협회장 여성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보배섬 진도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장귀남 회장)와 진도군트볼협회(박병육회장)가 주관하고 전라남도체육회와 진도군, 진도군체육회 후원으로 약 1천여 명의 시·군 게이트볼 선수 임원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승, 고흥군C팀…준우승-담양군A팀 · 3위-영광C · 강진A 팀

여성기대회 우승-여수A · 준우승-완도A 3위-신안C · 화순C 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이동진(진도군수)은 환영사를 통해"우리 군에서 이렇게 큰 게이트볼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배섬 진도를 찾아주신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진도군에 머무시는 동안 관광명소와 민속문화예술을 느껴보시고 동호인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좋은 추억도 함께 담아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먼저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진도군과 동호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튼튼한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가는데에 게이트볼이 그 중심에 있다며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첫 날 전남도협회장기대회 경기에서는 각 시군에서 33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 끝에 고흥군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팀의 감독 임성섭(고흥군협회 회장)은 우승 소감에서 "요즈음 게이트볼을 학생들부터 시작해 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에 오늘 참석한 고흥군 선수 평균 연령이 73세였다."고 말하고 "이는 나이에 안주하지 않고 선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한 댓가였다."며 기뻐했다.

이날 우승 팀에 참가한 전영래(81, 여 고흥군)선수는 경기 도중 자매 였던 동생의 사망 소식의 비보를 전해 듣고도 슬픔을 감추고 경기를 포기 하지 않고 결승전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했다.

또한 10일에 열렸던 제4회 전라남도협회장 여성기 생활체육대회에서는 무려 4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시 A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여수시 A팀의 감독 박종완(여수시게이트볼협회 회장)은 우승 소감에서"시군 선수들의 실력과 기량이 뛰어나 큰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어 그동안 땀흘려 훈련을 해왔던 여수시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며 참가 선수들의 노고에 치하했다.

한편 이번대회 주최를 했던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김일호(사무국장)은 시상을 마치고 "다음 제29회 대회는 미숙했던 점을 보완해서 더욱 알차고 뜻 깊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막을 내렸다.

진도=조상용 기자

'침묵 모드' 추신수, 2경기 연속 무안타 · 타율↓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2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치며 7경기 연속 출루행진을 멈췄다.1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5타수 무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전날 볼넷 1개를 얻어내는데 그친 추신수는 2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다. 연속 출루도 7경기에서 마감했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95에서 0.265(49타수 13안타)로 크게 떨어졌다. 텍사스는 무기력한 경기 끝에 1-11로 완패했다. 3연패와 함께 4승 9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다.

태극자매, 하와이서 4승 사냥…박인비 · 지은희 다승 도전

LPGA 롯데 챔피언십 오늘 개막…유소연·박성현도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하와이에서 올 시즌 4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12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카폴레이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시즌 8번째 대회인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이 열린다.

보통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대회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개막하지만 이 대회는 수요일 시작해 토요일 최종 라운드가 펼쳐진다.

앞서 7개 대회에서 3승을 합작한 한국 선수들은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4승에 도전한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1박2일 연장 끝에 아쉽게 준우승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선봉에 선다.메이저 8승과 함께 20승 고지를 앞에 두고 눈물을 삼킨 박인비는 2015년 이 대회에서도 연장 끝에 김세영(25·미래에셋)에게 우승을 내준 바 있다.'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답게 퍼팅감이 살아난 만큼 시즌 첫 번째 다승과 함께 20승을 채우겠다는 각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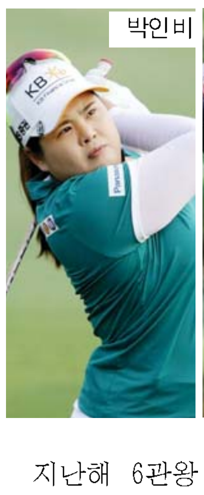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컷 탈락을 맛본 맏언니 지은희(32·한화큐셀)는 샷을 가다듬었다. 메이저 전초전인 'KIA 클래식'에서 우승한 분위기를 살려 2승 고지를 먼저 밟으려 한다.

올 시즌 주춤하고 있는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상' 공동 수상자인 유소연(28·메디힐)과 박성현(25·KEB하나은행)도 반등을 노린다.유소연과 박성현은 올 시즌 톱10에 단 한 차례만 들었다. 지난 시즌 유소연은 23개 대회에서 절반이 넘는 12차례나 톱10에 진입, 이 부문 투어 1위였다. 박성현도 23개 대회 중 11개 대회를 10위 이내 성적으로 마쳤다.아직 지난해와 같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를 전환점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연장 극적인 이글샷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은 우승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 타이틀 탈환을 꿈꾼다.김세영은 디펜딩 챔피언 크리스티 커(미국)와 2014년 이 대회 우승자인 미셸 위(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같은 조에서 경기한다.

지난해 최종 라운드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준우승한 전인지(24·KB금융그룹)도 오랜 준우승 징크스를 털고 오랜 만에 정상의 기쁨을 맛보려 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도 LPGA 원정길에 올랐다.



지난해 6관왕 주인공 이정은(22·대방건설)은 지난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한다. 롯데 골프단 소속 김지현(27), 하민송(22), 이소영(21)도 스폰서 초청으로 참가한다.

한국 선수들의 경쟁자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크리스티 커다. 커는 지난해 우승은 물론 2012년 공동 4위, 2014년 공동 9위, 2015년 공동 7위 등 이 대회와 좋은 궁합을 보였다.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한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도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나치게 긴 루틴으로 늑장 플레이 논란을 불러왔던 린드베리는 세계랭킹 6위 에리야 쭈타누깐(태국), 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한 조로 묶였다.

"누가 차준환 막으랴" 매력 극대화 아이스쇼 선보인다

오는 20일부터 3일간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17·휘문고)이 20~22일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아이스쇼 '인공지능 LG 신Q 아이스 판타지아 2018'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매니지먼트사 브라보앤뉴는 "차준환이 이번 아이스쇼에서 선보일 음악으로 (캐나다 가수 숀 멘데스의) '데어스 나싱 홀딩 미 백(There's Nothing Holdin' Me Back)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차준환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사용한 클래식한 음악과는 전혀 다른 빠른 비트와 경쾌함이 돋보이는 곡으로 그간 볼 수 없었던 차준환의 매력을 극대화할 곡"이라고 강조했다.

차준환은 "올림픽 등 공식대회에서는 정해진 구성을 차질 없이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이 많았다. 이번 아이스쇼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음악부터 바꿔 보자고 생각했다"며 "실제 준비 과정도 즐거웠다. 관중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차준환의 전담 코치로 아이스쇼 총감독이기도 한 브라이언 오서는 "차준환은 아이스 쇼를 통해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할 것이다. 파격 변신이 소년 차준환을 매력적인 청년 차준환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준환은 아이스쇼를 위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편 이번 아이스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알리나 자기토바와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이상 러시아)와 평창올림픽 페어 금메달리스트 알리오나 사브첸코·브뤼노 마소(독일), 팀 이벤트 금메달리스트 개브리엘 데일먼(캐나다)이 출연한다.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민유라·알렉산더 겜린과 김진서, 여자 싱글 유망주 이해인(13·방배중)도 아이스쇼에 나선다.